

##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구옥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Ok-Hee Koo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COVID-19로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 중 학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기인식, 학과만족도, 공감으로 설명력은 32.9%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인식( $\beta=.349$ ,  $p=.000$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 우선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사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due to COVID-19 and to examine and how this experience affects their professionalism and its relevance. The study involved 171 fourth-year students from two nursing colleges and was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21. The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run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awareness, self-esteem, and empath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decision-maker, department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The mai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elf-awarenes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empathy, which accounted for 32.9% of the explanatory power,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elf-awareness ( $\beta=.349$ ,  $p=.000$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improvement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of nursing is the primary requirement for developing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Also,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to promote private self-awareness, positive self-esteem, and emotional empathy.

**Keywords** : Clinical Practicum, Empathy, Non-Face-To-Fac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Awareness, Self-Esteem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Ok-Hee Koo(Baekseok Univ.)

email: koh0528@bu.ac.kr

Received June 28,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Revised August 4,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간호전문직은 사회적 요청,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이해하고 간호과학적 지식체 및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전문직이다[1].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직업의식적인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간호대학생이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2]. 간호대학생은 전공 이론수업과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게 되는데[3] 특히 임상실습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및 환자와의 좋은 관계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임상경험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2,4]. 하지만 COVID-19로 2020년 간호학생 대다수는 현장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수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경험 공유와 가상실습(V-Sim) 및 교수와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하여 비대면 임상실습을 시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은 사회전반을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많은 사회적 업무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여겨지지만 간호대학생에게 현장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4-6]를 살펴볼 때 지난 1년간의 비대면 임상실습 경험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 개념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7]로 다양한 선행개념과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공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2,7-13]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Park et. al.[7]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83편의 간호전문직관 연구 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상관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이었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 대해 추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간호전문직관 정립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 자기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고[14], 타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요[15]한 자기인식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고 인정하는 태도[16]인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생활 만족, 학업만족, 진로동기, 전공만족,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지적인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17].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도 높아지고 간호전문직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17,18]. 그리고 공감은 타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19] 효과적인 간호제공의 기본조건이다[8].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리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공감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인식, 임상경험의 유무, 대인간 스트레스라고 하였다[6,20,21].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의료현장의 여러 전문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진다[7].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임상실습을 현장에서 경험해야하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은 지난 1년간 비대면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임상실습이 거의 비대면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온라인 임상실습에 대한 효과검증과 좀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모든 임상실습교과목에서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형성 및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문직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0년 3학년 임상실습 교과과정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한 A시 소재 1개 대학과 C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21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의 기간을 설정하고 선착순 200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 $f$ )=0.15, 유의수준( $\alpha$ )=.05, power( $1-\beta$ )=.90, 관련 변인의 수를 5로 하였을 때 116명이 산출되었다. 자료 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181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유무, 학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직전학기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 2.3.2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Fenigstein et al.[22]의 도구를 Eun[23]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세 하위요인으로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un[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68이었다.

####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4] 도구를 Jon[2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n[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2.3.4 공감

공감은 Davis[26]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 검사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Park[2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두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감 14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2.3.5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et al.[28]이 개발하고 Han et al.[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실무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Yeun et al.[28]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 Han et al.[29]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30]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é 분석을 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 표준화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IRB-202103-HR-003).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비대면 온라인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구글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 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 및 3년간 보관된 후 분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24세가 115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147명(86%), 남학생이 24명(14%)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102명(59.6%)이었다. 간호학전공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91.8%(157명)이었으며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82.5%(141명)가 만족이상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9%(118명)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은 94.2%(161명)가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24	115	67.3
	25-29	42	24.5
	≥30	14	8.2
Sex	Male	24	14.0
	Female	147	86.0
Religion	Yes	69	40.4
	No	102	59.6
Major decision maker	Self	157	91.8
	Parents	14	8.2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51	29.8
	Satisfied	90	52.7
	Moderate	26	15.2
	Dissatisfied	4	2.3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36	21.0
	Satisfied	82	48.0
	Moderate	39	22.8
Last semester grade	≥4.0	40	23.4
	≥3.0	121	70.8
	<3.0	10	5.8

### 3.2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기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7±0.36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06±0.52점 이었고 공감은 5점 만점에 3.53±0.40점 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0±0.52점 이었다.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s (N=171)

Variables		Mean±SD	Scale
Self-awareness	Private	3.65±0.44	Max 5
	Public	3.68±0.68	
	Social anxiety	3.02±0.82	
	Total	3.47±0.36	
Self-esteem	Positive	3.29±0.56	Max 4
	Negative	2.82±0.57	
	Total	3.06±0.52	
Empathy	Cognitive	3.63±0.53	Max 5
	Emotional	3.43±0.39	
	Total	3.53±0.40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4.06±0.56	Max 5
	Social awareness	3.41±0.75	
	Professionalism	4.02±0.63	
	Roles	4.18±0.65	
	Originality	4.13±1.05	
	Total	3.90±0.5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검증을 살펴본 결과 간호학과 주결정자(t=4.208, p=.042), 학과만족도(F=10.555, p=.000), 대학생활 만족도(F=6.220, p=.000), 학업성적(F=3.045, p=.05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대상자

본인이 직접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이 보통 학생보다,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학생이 불만족한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이 3.0 미만인 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1)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F (p) Scheffé
Age	20-24	3.93±0.51	2.351 (.098)
	25-29	3.89±0.57	
	≥30	3.62±0.31	
Sex	Male	3.91±0.69	.028 (.868)
	Female	3.89±0.49	
Religion	Yes	3.94±0.55	1.031 (.311)
	No	3.86±0.49	
Major decision maker	Self	3.92±0.52	4.208 (.042)
	Parents	3.63±0.46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sup>a</sup>	4.16±0.47	10.555 (.000) a>c
	Satisfied <sup>b</sup>	3.85±0.48	
	Moderate <sup>c</sup>	3.54±0.50	
	Dissatisfied <sup>d</sup>	3.68±0.50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sup>a</sup>	4.13±0.47	6.220 (.000) a,b>d
	Satisfied <sup>b</sup>	3.91±0.49	
	Moderate <sup>c</sup>	3.78±0.56	
	Dissatisfied <sup>d</sup>	3.51±0.35	
Last semester grade	≥4.0 <sup>a</sup>	3.94±0.45	3.045 (.050) a,b>c
	≥3.0 <sup>b</sup>	3.91±0.52	
	<3.0 <sup>c</sup>	3.51±0.59	

### 3.4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식( $r=.486, p<.01$ ), 자아존중감( $r=.365, p<.01$ ), 공감( $r=.352, p<.01$ )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인식은 자아존중감( $r=.374, p<.01$ )과 공

감( $r=.330, p<.01$ )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과 제 변수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한 결과 모든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을 독립변수로 처리하고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학과 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을 더미변환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2.095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80~1.191로 기준치 10미만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840~0.926로 1.0 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인식( $\beta=.349, p=.000$ )이었고 설명력은 32.9%이었다(Table 5).

제 변수의 모든 하위항목도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세부항목을 확인하고자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 긍정적 자아존중, 부정적 자아존중,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을 독립변수로 처리하고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학과 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을 더미변환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2.105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266~1.376이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727~0.790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하위항목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적 자기인식( $\beta=.323, p=.000$ ), 긍정적 자아존중감( $\beta=.295, p=.000$ ), 정서적 공감( $\beta=.206, p=.002$ ), 학과만족도( $\beta=.141, p=.045$ )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9% 이었다(Table 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71)

Variables	SA-private	SA-public	SA-social anxiety	SA	SE-positive	SE-negative	SE	E-cognitive	E-emotional	E	NP
SA-private	1	.555**	-.120	.724**	.101	.016	.063	.313**	.454**	.431**	.474**
SA-public		1	-.268**	.588**	-.072	-.039	-.060	.231**	.289**	.296**	.258**
SA-social anxiety			1	.488**	.523**	.476**	.543**	.011	-.146	-.064	.157*
SA				1	.376**	.313**	.374**	.287**	.284**	.330**	.486**
SE-positive					1	.692**	.918**	.176*	.095	.163*	.418**
SE-negative						1	.922**	.112	.041	.095	.256**
SE							1	.156*	.074	.140	.365**
E-cognitive								1	.486**	.904**	.234**
E-emotional									1	.813**	.401**
E										1	.352**
NP											1

\*p<.05, \*\*p<.01 SA: Self-awareness, SE: Self-esteem, E: Empathy, NP: Nursing Professionalism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N=171)

Variables	B	S.E.	$\beta$	t	p	VIF	Tolerance	Durbin-Watson
Constant	.495	.380		1.303	.194			2.095
Self-awareness	.497	.098	.349	5.090	.000	1.191	.840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184	.046	.261	3.995	.000	1.080	.926	
Empathy	.262	.086	.202	3.037	.003	1.125	.889	

F value : 28.740, p-value : <.001, R<sup>2</sup> : .340, adjusted R<sup>2</sup> : .329

Table 6.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by sub-items of independent variables

(N=171)

Variables	B	S.E.	$\beta$	t	p	VIF	Tolerance	Durbin-Watson
Constant	.269	.346		.777	.438			2.105
Empathy-emotional	.273	.088	.206	3.082	.002	1.266	.790	
Self-esteem-positive	.274	.064	.295	4.293	.000	1.335	.749	
Self-awareness-private	.379	.079	.323	4.793	.000	1.287	.777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099	.049	.141	2.016	.045	1.376	.727	

F value : 29.200, p-value : <.001, R<sup>2</sup> : .413, adjusted R<sup>2</sup> : .399

####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로 2020년도 임상실습 교과목에 대해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각 변수의 평균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인식 수준은 평균  $3.47 \pm 0.36$ 점(최대 5점)으로 중간이상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3,4학년 대상의 연구[31]  $3.45 \pm 0.36$ 과 유사하였다. 1-4학년 대상의 연구[32,33] 평균  $3.37 \pm 0.36 \sim 3.40 \pm 0.35$  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수준이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사적 자기인식  $3.65 \pm 0.44$ 점, 공적 자기인식  $3.68 \pm 0.68$ 점, 사회적 불안  $3.02 \pm 0.82$ 점으로 Son[33]의 연구 사적자기인식  $3.53 \pm 0.50$ 점, 공적자기인식  $3.63 \pm 0.57$ 점, 사회적 불안  $2.92 \pm 0.68$ 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고나 감정을 더 잘 인식[33]하므로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명확히 이해하며 자기감정을 잘 조절하는 감성수준을 가지도록 대학에서의 교육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06 \pm 0.52$ 점(최대 4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1학년 대상 Ryu[17]의 연구  $2.79 \pm 0.47$ 점 보다 높았고 3,4학년 대상 Park & Chung[19]의 평균  $3.10 \pm 0.48$ 점과 유사하였다. 하부 영역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3.29 \pm 0.56$ ,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2.82 \pm 0.57$ 이었으며 1-4학년 대상 Moon & Cho[12]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3.07 \pm 0.56$ , 부정적 자아존중감  $2.58 \pm 0.58$ 로 본 연구대상자가 두 하위영역 모두 높았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이론수업이나 실습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문제해결의 기회제공과 e-mail, SMS(short message servic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활용으로 교수와의 빠른 피드백이 가능했던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친구들은 친구와의 교류나 교수와 적극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나 실습에 대한 실망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신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 수용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감 수준은 평균  $3.53 \pm 0.40$ 으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Ji[8]의 연구  $3.68 \pm 0.35$ 보다는 낮고 Park & Chung[19]의 3,4학년 연구 평균  $3.40 \pm 0.29$ , 1-4학년 대상 Park[34]의 연구 평균  $3.47 \pm 0.43$  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수준이 높았다. 지식적 교육은 인지적 공감에 도움을 주고 상담이나 집단치료 경험은 정서적 공감에 도움이 된다[34]고 하니 간호대학생에게 타인의 내면에 주의를 두는 교육 및 이미지메이킹 훈련으로 공감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은 평균  $3.90 \pm 0.52$ (최대5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현장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대상 Lim[2]의 연구는 평균  $3.62 \pm 0.50$ , 3학년 대상 Kim[3]의 연구는 평균  $3.70 \pm 0.56$ , 3, 4학년 대상 Cho[6]의 연구는 평균  $3.89 \pm 0.55$ 이었다. 1-4학년 대상 Kang & Ko[9]의 연구는 평균  $3.81 \pm 0.55$ , Jung[11]의 연구 평균  $3.60 \pm 0.49$ 로 본 연구대상자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하위영역으로는 간호실무의 역할 평균이  $4.18 \pm 0.65$ 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사회적 인식 평균이  $3.41 \pm 0.75$ 이었다. 이는 사회적 인식을 낮게 지각한 이전의 연구[3,6,35-37]와 같은 결과로 여전히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호직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 및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신념 및 가치관이나 윤리적 표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행동을 받아들여[38]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4년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COVID-19로 갑자기 시행된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아 비교는 어려우나 비대면 온라인 성인간호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39, 40] 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학생들은 새로운 학습 경험이었으며 비대면 실습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쉬움과 성취감 및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 변화 등 양가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간호사로 성장해 나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임상실습을 경험한 선행연구 결과[2,3,6,9,11]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수준이 높으므로 앞으로 가상시뮬레이션이나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을 접목하는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41,42]이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43,44]도 임상실습 교과목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주결정지( $t=4.208, p=.042$ ), 학과만족도( $F=10.555, p=.000$ ), 대학생활 만족도( $F=6.220, p=.000$ ), 학업성적

( $F=3.045, p=.050$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Kang & Ko[9] 연구에서는 연령( $t=3.63, p=.028$ )에서 Ji[8] 연구에서는 직업경험( $t=2.964, P=.003$ )과 전공만족( $F=42.922, p=.000$ )에서 차이가 있었다. Kim[3] 연구에서는 연령( $t=4.761, p=.010$ )과 간호학 선택동기( $F=2.584, p=.038$ )에서 Jung[11]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F=6.666, p=.001$ )와 전공만족( $F=3.801, p=.012$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간호전문직관에 전공만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에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기인식( $r=.486, p<.01$ )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사적 자기인식( $r=.474, p<.01$ ), 긍정적 자아존중감( $r=.418, p<.01$ ), 정서적 공감( $r=.401, p<.01$ )의 상관계수도 높은 편이었다.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았던 Kang[45]의 연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았던 Park & Chung[19]과 Nam[4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Moon & Cho[12]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계수( $r=.266, p<.01$ )도 유의하여 본 연구결과를 모두 지지하고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자기인식, 학과만족도, 공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2.9%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인식( $\beta=.349, p=.000$ )이었다. 자기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에 자기인식의 개념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된 것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또한 하위항목을 독립변수로 한 간호전문직관의 설명력은 39.9%이었는데 정서적 공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사적자기인식, 학과만족도이었다. 동일한 변수를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설명은 어려우나 전문직관의 영향요인에 대한 Jung[11]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beta=.356, p=.000$ )과 건강상태( $\beta=-.295, p=.000$ )가 설명력 24.7%이었고 Moon & Cho[12]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beta=.268, p=.000$ )과 전공만족도( $\beta=-.246, p=.000$ )가 설명력 13.1%이었으며 Cho[6]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경험( $\beta=.43, p<.001$ )과 자아존중감( $\beta=.27, p<.001$ ), 연령( $\beta=-.16, p=.004$ ), 전공만족도( $\beta=.14, p=.023$ )가 설명력 43.3%이었다. Kang & Ko[9]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beta=.55, p=.000$ )와 자기효능감( $\beta=.15, p=.004$ )이 설명력 34%이었고 Kim[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이미지( $\beta=.705, p=.000$ ), 의사소통능력( $\beta=.136, p=.001$ ), 전공만족도( $\beta=.133,$

$p=.002$ )가 간호전문직관을 72.%로 설명하고 있어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83편의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전문직관 국내 동향분석 연구[7]에서는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양질의 간호제공은 물론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다른 의료전문직 간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증진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전문직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적인 자기인식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4년간의 체계화된 교육과 타인의 내면에도 주의를 가질 수 있는 정서적 공감 훈련을 통하여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3.90점(최대 5점)이었으며, 자기인식( $r=.486, p<.01$ ), 자아존중감( $r=.365, p<.01$ ), 공감( $r=.352, p<.01$ )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 중 학과 주결정자( $t=4.208, p=.042$ ), 학과만족도( $F=10.555, p=.000$ ), 대학생활 만족도( $F=6.220, p=.000$ ), 학업성적( $F=3.045, p=.050$ )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기인식( $\beta=.349, p=.000$ ), 학과만족도( $\beta=.261, p=.000$ ), 공감( $\beta=.202, p=.003$ )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었고 설명력은 32.9%이었다. 하위항목을 독립변수로 한 결과에서는 사적 자기인식( $\beta=.323, p=.000$ ), 긍정적 자아존중감( $\beta=.295, p=.000$ ), 정서적 공감( $\beta=.206, p=.002$ ), 학과만족도( $\beta=.141, p=.045$ )가 간호전문직관을 39.9%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편의표출로 인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이미지메이킹이나 가상시뮬레이션 활용 자기인식증진프로그램 개발과 역할극이나 다문화체험 등의 정서적 공감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긍정적인 태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비교  
과 및 인성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및 그 효과를 검증  
하는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 S. Ko, Y. K. Ko, Y. J Kim, et. al. Revised 5th, Introduction Nursing, Soomoonsa: Seoul, 2019.
- [2] S. M. L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5), pp.51-59, 2020. DOI: <http://doi.org/10.22156/CS4SMB.2020.10.05.051>
- [3] Y. J. Kim,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KEIA*, 14(8), pp.265-276, 2020. <http://www.riss.kr/link?id=A107240318>
- [4] S. H. Lee,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pp.1-3, Korea, 2016. <http://www.riss.kr/link?id=T14170375>
- [5] B. J. Park, S. J. Park, H.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pp.220-227, 2016. DOI:<https://doi.org/10.5762/KAIS.2016.17.7.220>
- [6] K. S. Cho,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Muscle Jt Health*, 27(2), pp.142-152,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2.142>
- [7] S. Y. Park, S. J. Park, Y. J. Yang, E. Y Choi,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Nursing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4(2), pp.13-35, 2020. <http://www.riss.kr/link?id=A106911487>
- [8]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pp.1685-1697, 2014. <http://www.riss.kr/link?id=A101601471>
- [9] K. S. Kang, Y. S. Ko,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11(2), pp.179-189, 2016. DOI: <http://doi.org/10.15715/kihcom.2016.11.2.179>
- [10] M. S. Ko,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 Health Commun*, 14(2), pp.85-92, 2019. DOI: <http://doi.org/10.15715/kihcom.2019.14.2.85>
- [11] E. S. Jung, "Influencing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pp.339-355, 2020. DOI: <http://doi.org/10.22251/ilcci.2020.20.17.339>
- [12] S. J. Moon, K. A. Cho,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Self 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pp.313-328,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11.313>
- [13] M.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ctor's thesis, Bukyung University, Busan, Korea, pp.1-50, 2021. <http://www.riss.kr/link?id=T15753202>
- [14] J. W. Park, M. 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18(3), pp.351-363, 2009. <http://www.riss.kr/link?id=A76564919>
- [15] H. J. Kim, M. S. Le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2), pp.237-245,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16]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8(1), pp.60-68, 2009. <http://www.riss.kr/link?id=A60038887>
- [17] Y. M. Ryu,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9-15, 2015. <http://www.riss.kr/link?id=T13744005>
- [18] Y. M. Kwon, E. J, Yoo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pp.285-292, 2007. <http://www.riss.kr/link?id=A76516760>
- [19]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pp.7698-7707,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20] M. R. Alligood, "Rethinking empathy in nursing education: Shifting to a developmental view", *Annual Review of Nursing Education*, 3, pp.299-309, 2005. <http://lps3-search-proquest-com.libproxy.bu.ac.kr/docview/216907419?pq-origsite=summon>
- [21] C. T. Ozcan, F. Oflaz, B. Bakir, "The effects of a structured empathy course on the students of a

- medical and a nursing school”,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 pp.532-538, 2012.  
DOI: <https://doi.org/10.1111/i.1466-7657.2012.01019.x>
- [22] A. Fenigstein, M. F. Scheier, A. H. Buss,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Consult Clin Psychol*, 43(4), pp.522-527, 1975.  
DOI: <https://doi.org/10.1037/h0076760>
- [23] H. G. Eun,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Korean J Youth Couns*, 9, pp.136-157, 2001.  
<http://www.riss.kr/link?id=A102573669>
- [24]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http://www.riss.kr/link?id=M2571511>
- [25]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a collection of treatises*, Vol. 11, pp.107-130, 1974. <http://www.riss.kr/link?id=A3215438>
- [26]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 Pers Soc Psychol*, 44(1), pp.113-126,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27] S. H. Park, *Empathy-yesterday and today*, Seoul, Hakjisa, 2004. <http://www.riss.kr/link?id=M9291892>
- [28]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 Korean Acad Nurs*, 35(5), pp.1091-1100, 2005.  
DOI: <http://dx.doi.org/10.4040/ikan.2005.35.6.1091>
- [29]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 Korean Acad Soc Nurs Edu*, 14(1), pp.73-79, 2008.  
<http://www.riss.kr/link?id=A100292306>
- [30] SPSS IBM Corp. Released 201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NY : IBM Corp.
- [31] J. W. Park, M. 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pp.351-360, 2009.  
<http://www.riss.kr/link?id=A76564919>
- [32] E. J. Oh,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2), pp.549-560,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2.549>
- [33] M. R. Son, “Influence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n Smartphone and Internet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7(1), pp.74-84, 2018.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8.27.1.74>
- [34] J. H. Park, “Essential competency of new graduate registered nurse that has been perceived by experienced senior nurses”, *AJMAHS*, 7(1), pp.567-575, 2017.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7.7.1.051>
- [35] S. K. Yang, M. R. Jung, “The Influences of Academic-burnout,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pp. 613-629, 2016.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6.16.11.613>
- [36] E. H. Hwang,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pp.97-108, 2017.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97>
- [37] K. I. Lee, G.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8(1), pp.77-86,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0.8.1.077>
- [38] K. K. Chitty,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and challenges*(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2001.
- [39] S. H. Lim,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ctact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 pp.195-205, 202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1.22.4.195>
- [40] S. Y. You, M. Y. Cho,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Online Adult Nursing Practicum In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 pp. 385-398,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10.385>
- [41] K. McCutcheon, P. O’Halloran, M. Lohan, “Online learning versus blended learning of clinical supervisee skills with pre-registration nursing students: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82, pp.30-39, 2018.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8.02.005>
- [42] Y. M. Song, “Online and Blended learning application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Progra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1), pp.289-303,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11.289>
- [43] M. K. Lee, S. J. Chang, S. J. Jang, “Effects of the Flipped Classroom Approach on th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Cours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6(2), pp.196-203, 2017.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2.196>
- [44] M. K. Cho, M. Y. Kim, “Outcomes and influential factors applying flipped learning methods in a clinical adult nursing practicum”,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5(2), 2019.  
DOI: <https://doi.org/10.1111/ijn.12724>

- [45] M. O. Kang,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47, pp.207-238, 2015.  
DOI: <http://doi.org/10.35504/kph.2015..47.008>
- [46] Y. J. Nam, *The Influence of Self-Awareness, Self-Acceptance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7.  
<http://www.riss.kr/link?id=T14439134>
- 

구 옥 희(Ok-Hee Koo)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인성, 전문직관